

특특뉴스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20일 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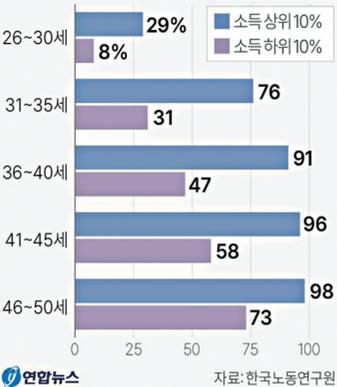
현재 '15일 이전'에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가 '20일 이전'으로 앞당겨진다. 세무 조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중소기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은 '사전 통지기간 확대'를 비롯한 6가지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 기간을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한다. '자료제출 요구 가이드라인'도 개편된다.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 추정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세 적법성 검토회의'도 신설했다.

그래픽 경제

남성 소득수준별 혼인 비율

2017년~2019년 기준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 있는 비율



소득 높을수록 혼인 비율도 높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율 감소·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비율을 일컫는 혼인 비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른 혼인 비율 차이는 40세 이상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소상공인, 허리띠 조인다

전기료 인상·이른 더위 이중고

형광등→LED로 조명등 교체

냉장 진열대에 비닐커튼 설치

실외기 차광막·간판 없애기도

정부, 분할납부 제도 확대 박차



냉방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계 에어컨 실외기에 차광막을 설치한 모습(왼쪽).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한 헬스장 탈의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 이 헬스장은 지난 13일 화장실과 탈의실 등 모든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등으로 변경했다. 전력소요가 높은 여름을 앞두고 한 푼이라도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헬스장 대표 신 모씨(38)는 “시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전기요금은 오를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조명을 LED로 바꿔 전기세를 아끼려고 회원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새벽에 급하게 교체를 진행했다”며 “아직 교체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 나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많게는 형광등보다 최대 80%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하니 전기요금 인상에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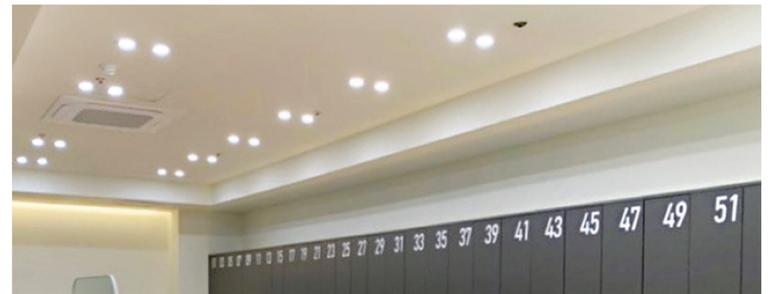
지난 15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5월인 현재 더위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있는 데다 올 여름

은 긴 장마로 인해 습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영업에 필수적인 냉방기구를 제외하고 자잘한 곳에서도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남구에서 도시락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개방형 냉장 진열대에 비닐커튼을 설치했다.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는 냉장 진열대 특성상 전기 소모량이 많은데, 비닐커튼 설치를 통해 냉기 누출을 막으면 전기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다.

김씨는 “비닐커튼 하나 설치해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속는 셈치고 비닐커튼을 설치했다”며 “전기요금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 모씨는 에어컨 실외기에 차광막을 설치했다.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



돼 있으면 냉방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긴 했으나 가계 위치 특성상 실외기를 그늘로 옮길 수 없어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차광막 설치.

남씨는 “5월인데 덥다는 손님들의 불평에 벌써부터 점심에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며 “실외기를 그늘로 옮길 수 없어 차광막 설치를 통해 냉방효율이 더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실외기 위 먼지를 계속해서 치우기도 번거로웠는데, 앞으로는 차광막만 교체하면 되니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쌍촌동에서 디지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아예 간판을 없앴다.

김씨는 “태이크아웃이 많은 가게 특성상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데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굳이 밤 늦게까지 홍보를 위해 간판 불을 켜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과감하게 간판

을 없애고 가계 로고를 제작해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며 “디지털을 만들고 보관하고 판매하는 곳이라 안그래도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데, 간판을 없애 조금이나마 전기요금이 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동·하계 전기요금 10만원 이상이거나 기타 계절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오던 이 제도를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겨울 난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냉방비 부담을 덜 대책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오지현 기자

중기중앙회, 민생활력 +5°C 캠페인 시작

대인시장 방문, 물품 구입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제 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대인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활력 온도 +5°C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인시장 방문 행사에는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회장, 문병남 대인시장 상인회장, 각 협동조합 이사장, 지역 복지시설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총 1,300만원 상당의 전

통시장 물품을 구입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내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한편,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중소기업계의 민생활력 캠페인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고용과 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가지 지표 이상은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광주·전남에서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 1억 3,000만 원을 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대인시장을 방문, '민생활력 온도 +5°C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임경준 광주전남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대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확산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승현 기자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 S-클래스